



亞문화전당 타워크레인 제적

26일 새벽 정제 상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들이 제적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당의 애초 완공시기는 2010년이었으나 랜드리크 논란,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 등으로 4년이 지연되면서 2014년 완공을 위해 지역역량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높다. <서터 스피드 15초, 조리개 22로 다중촬영>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亞문화전당 이전 완공에 힘모으자

정부 최종안 채택 여부 이번주 결정 시의회 "소모적 논쟁 접고 수용하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정부 최종안'이라며 내놓은 '옛 전남도청 별관 24m의 골격 유지 및 강구조물 보완'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오는 29일엔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10인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추진단의 최종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도 비슷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추진단의 최종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광주시는 올해 옛 전남도청 별관 부분보존 갈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인 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한 뒤 지역 국회의원 및 광주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이다. 손재홍 위원장은 "12명의 특위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다"며 "광주시의회나 문화수도특별위원회 명의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추진단 최종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최종안 수용'을 바라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속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종안에 방법의 차이일 뿐 옛 도청 별관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며 "문화전당은 시설보다는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중요한데 상당부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단체로 꾸러진 시민대책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주장했던 24m의 1~3층을 철거하고 4층을 연결통로로 쓰는 속칭 '5월의 문'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존되는 별관 역시 상징물이 아닌 특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안에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2014년 완공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자체가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완공이 가능하다"며 "지역에서조차 합의를 하지 못한 사업에 애초부터 전담 건립에 소극적인 중앙정부가 전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하자는가"라고 반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키스해링 지상전

▶ '침묵=죽음' (99.1×99.1cm·실크스크린·1989년)

사망 1년전 작품... 에이즈 관심 촉구

지난 1990년 키스 해링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린 것으로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작품이다. 동성애자 모임의 상징인 분홍색 삼각형과 눈과 귀를 막은 회색 윤곽선의 인물들이 열기설기 그물처럼 퍼져 있다.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한 해링은 1989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팝 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은 내년 2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광주지하철 농성역 인근)에서 계속된다. (062)613-5396



전남도, 농가간 소 거래 전면금지

구제역 확산 조짐 속 정부 백신 접종 시작

정부가 구제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주말과 휴일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남도 방역당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5면> 경북 안동, 경기도 이어 강원 횡성, 최전방인 강원 철원으로까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이어 경기 남부와 인천에도 구제역이 확산되는 등 당국의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대규모로 돼지를 길러 불하·판매하는 경북 영천의 '종돈장(種豚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로써 정부가 25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4개 시도, 23개 시군, 57곳으로 늘어났고 피해도 1963 농가의 42만4827마리가 살처분·매몰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도 구제역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농가 간 또는 유통상인을 통한 소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또 번식 전문농장에서 비육장으로 새끼돼지를 옮기는 등 부득이하게 지

자체간 경계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임상관찰과 소독을 실시한 뒤 거래하도록 했다. 이외 살아있는 가축의 시·도간 이동도 금지하며 출하가축은 해당 도의 관할 도축장에서만 도축·유통하고 다른 도의 도축장이 용도 금지했다. 반면, 육류의 시·도간 이동은 지육 또는 정육 상태로는 가능하다.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리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 경계와 시·군 주요 도로 76곳에 설치한 방역 초소 운영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등 방역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주 2회 소독하고 있으며 예방요원 427명을 동원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점검도 벌이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年 생산 40만대 돌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사상 첫 연간 생산 40만대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8면>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은 40만1043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30만대(31만2622대)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만에 10만대가 늘어난 수치로, 4년동안 평균 7%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32만3066대와 비교해 1년 사이에 무려 24%(7만7977대)나 급증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40만대 돌파는 광주공장의 야심작 '쏘울'(15만5484

대)과 '스포티지R'(10만7672대)이 주도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사상 첫 40만대 돌파는 노사 합의로 본격 케도에 오른 50만대 재편 사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STAY ENERGIZED.

홀리데이 인 광주는 오픈을 기념하여 특별한 가격을 2011년 1월 31일까지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130,000원 VAT 외 별도*

또한 모래시계 레스토랑에서 한 분의 아침식사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래 약관 항목이 적용됩니다.

Holiday Inn KWANGJU

예약 및 문의 _ 전화: 062 610 7000
 이메일: kwjsu.res@ihg.com

STAY YOU.™
 holidayinn.com